



작품 : 홍경희 클라우디아 (금정성당 · 주보 표지 및 콘텐츠 공모전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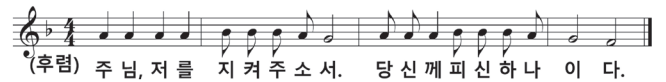
입 당 송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 1 독 서 다니엘 예언서 12,1-3

화 답 송 시편 16(15),5와 8.9-10.11 (◎ 1 참조)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1. 주님은 제 뉘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2.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3.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 2 독 서 히브리서 10,11-14.18

복 음 환 호 송 루카 21,36 참조

◎ 알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복 음 마르코 13,24-32

영 성 체 송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 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주보 4면 참조 바랍니다.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젊은이 주보
(Youth Week)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11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보편 지향 :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종말과 준비된 삶

전례력으로 보았을 때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묵시 문학적 표현을 빌려서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마르 13,26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새 세상, 더 나은 세상이 도래하리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정작 그 날과 시간에 대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르 13,32-33 참조)

개인적인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를 보게 되더라도 예측불허의 죽음, 곧 종말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성장처럼 그 끝을 예감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

비는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예측불허의 상황이 많습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방학 기간 내내 놀다가 개학을 앞두고 숙제를 꼬박꼬박 열심히 잘한 경우에는 당당할 수 있었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허둥대면서 벼락치기로 고생을 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삶을 생각해보면, 갑자기 닥친 어려움에 평소 저축이라도 열심히 한 사람의 경우라면 담담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속을 태우고 발을 동동 구를 것뿐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 해둔 것은 언젠가 급한 경우가 닥칠 때 그 빛을 발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앞서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착실히 준비된 삶은 그 끝이 명쾌하고 깨끗한

삶이 됩니다. 깨어 있고 준비된 삶이 된다면, 밀린 숙제 없이 제날짜에 깨끗하게 정리해 나간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치더라도 상관치 않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한 신앙생활 해나가도록 합시다!

깨어 있고 준비된 삶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치더라도
상관치 않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우
클레멘스 신부
장림성당 주임



우선한보

부끄럼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강을
익숙하게
진짜하는
부끄럼 없는
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Your hand

캘리그래피. 손보영 카타리나 (덕계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제) 16:50

11.15(월)~16(화)
이강우 신부(장림성당 주임)

11.17(수)~20(토)
홍영택 신부(선교사목국 부국장)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11.14(일) 21:00~22:00
진행 : 김현지 리나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출연 : 피아니스트 김미현 (창원대 교수)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11.19(금) 14:00~16:00
진행 : 이재석 신부(부산평방 총괄국장)
2부 <우린 찬양사도>
출연 : 동이씨니
(제20회 cpbc창작생활성가제)

상가를 방문하면 대체로 상주들께 슬픔을 잘 이겨내라는 위로를 건넵니다. 고인에 대한 관심보다 산 사람을 위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아버님을 여윈 친구의 말을 듣고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 계실 땐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도 못 썼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그리운 모습이 자꾸 떠올라 아버님이 생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누군가의 마음속에 산다는 것, 죽음으로도 헤어지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보내는 위령 성월이 남의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 나오는 ‘통공’이란 말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땅의 신자들과 연옥, 천국의 영혼이 모두 주님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와 선행을 주고받는 친교라고 이해했습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죽은 영혼들과의 교류를 믿는다고 고백했

지만, 내게 죽음은 알 수도 없고 가능하면 멀리 하고 싶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죽는다는 것,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실이 있을까요? 문밖이 저승이라는 옛말처럼 죽음은 늘 가까이 있고 하루를 산다는 건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 어찌면 우리 대부분은 연옥 예약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연옥 영혼은 앞서간 인생 선배들이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연옥 영혼은 스스로 보속할 수 없고 산 자들의 기도와 선행으로만 하느님 나라에 오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화의 고통을 받고 있는 연옥 영혼들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가치 있고 절실한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위령 성월은 이승과 저승이 모두 주님 안에 공동체임을 믿고 산 자들의 기도

로 죽은 자들의 구원을 돕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한 달 내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큰 은총입니다.

어른이 된 딸들은 냉담 중입니다. 바쁘고 치열한 경쟁에 내던져진 딸들에게 지금 당장 성당을 다니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 품에 돌아오길 기대하며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죽으면 매년 위령 성월과 기일에 미사 드리기”입니다. 약속을 받고 나니 세상 어떤 연금이나 보험을 든 것보다 든든합니다. 내 영혼이 연옥을 지나 하느님 품에 이르면 영원히 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간절히 믿으며 나도 연옥 영혼들이 깊은 구렁에서 외치는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 **탁은수** 베드로

광안성당 · 언론인 fogtak@naver.com



45. 미사 예물과 교무금과 헌금

‘미사 예물과 교무금과 헌금’ 영상 바로보기



어릴 적에는 헌금을 연보(捐補)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치다 혹은 기부하다는 뜻의 연(捐)자와 고치다, 깎다는 뜻의 보(補)자를 합친 말로 교회에 바쳐서 세상을 바르게 보수하고, 구멍난 곳을 깎는다는 뜻으로 요즘 쓰는 헌금보다 그 속뜻이 와닿는 말 같습니다. 신자들이 모이면 가끔 ‘미사 예물’은 얼마가 적당한지, 또 교무금과 주일 헌금은 어느 정도 봉헌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격렬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도 합니

다. 그러다 마음으로는 벌써 전 재산을 봉헌한 어느 신자분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개신교 신자들처럼 수입의 십분지 일을 내는 십일조를 지켜야 한다.”며 흥분하기도 합니다. 각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다르다 보니 누구도 쉽게 결론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성경의 ‘과부의 헌금’ 내용을 이야기하며 대충 결론짓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미사 예물과 교무금, 그리고 헌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30대 초반이었던 춘련(가명, 만 53세) 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있는 친척 집에 돈을 벌러 갔습니다. 하지만 네 차례나 중국 공안에 잡혔고 복송을 당해 수용소로 끌려 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텨야만 했고, 허약해진 몸으로 겨우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붙잡힐까 두려웠지만 마지막 탈출을 시도해, 2004년 8월에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춘련 씨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한국에 적응하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탈북민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상호(가명, 만 57세)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상호 씨는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춘련 씨는 그의 조건이 아닌 인품 하나만을 보고 결혼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8년, 소중한 아들 지혁이(가명, 만 13세)를 얻었습니다. 비록 경제적 상황은 어려웠지만, 3명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어느 날 오후, 춘련 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술실이 없어 침상에 방치되어있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받았지만, 남편은 끝내 선종하였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장의비, 유족연금 등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일과 뇌출혈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해당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이 꿈인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의 부재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지, 사춘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너무 걱정입니다. 친구들과 비교당하기 싫어서 시장에서 파는 옷과 신발을 거부하는 아들의 모습에 춘련 씨는 무척 속상합니다. 많이 먹고 한창 클 나이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에 미안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춘련 씨는 예전부터 허리가 불편해 보호대가 없으면 외출이 힘든 상황이었고, 남편의 죽음 이후에는 극심한 우울증마저 앓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급성 공황장애 판정까지 받아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어 일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 걱정해 잠겨있지만, 성당의 불빛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다는 춘련 씨. 17년 전,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한 것처럼 아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 기간 연장

교황청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이 전대사를 **2021년 11월 한 달간 수여**한다는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어느 날이든 묘지를 참배하여,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통상적으로 수여되던 전대사가 11월이 끝날 때까지 연장된다.

나.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인 11월 2일에,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하여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는 신자들에게 수여되는 전대사 또한, 11월이 끝날 때까지 연장된다.

※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은 유지된다.

다만, 노인들, 병자들, 혹은 집합금지와 같은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모든 이들은, 다른 모든 신자들과 영적으로 결합하고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예수님 또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성화 앞에서 위령 성무일도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묵주기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신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다른 기도를 바치거나,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한 전례가 제안하는 복음 구절들 가운데 하나를 묵상하며 읽거나, 자신의 삶의 고통과 고난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자비의 활동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제3차 평신도 아카데미



(토) 주교좌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제3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라는 주제로 신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신호철 주교의 기조 강연과 전수홍 신부(토현성당 주임)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총대리 신호철 주교는 총평을 통해 "오늘 평신도 아카데미는 하느님께서 이번 희년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 가운데 하나의 선물이다."고 말했다.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지도: 총대리 신호철 주교, 회장: 최재석 사도요한) 주관으로 지난 11월 6일

제3차 평신도 아카데미는 총대리

해양사목, 선원 격리시설 방문 및 격려 물품 전달



10월 29일(금) / 담당: 김현 신부



하단성당(주임: 강현철 신부, 회장: 진영권 에지디오)이 본당 33년

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을 개관하여, 지난 10월 31일(일) 축복식을 거행했다.

역사관은 역대 신부와 평협회장 소개 및 본당 출신 성직자 소개, 1987년부터 2021년까지의 본당 역사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10월 24일(일)
주임: 신기현 신부, 회장: 김옥건 필립보



10월 31일(일)
주임: 김수진 신부, 회장: 남현주 토마스

새샘학교 1,2단계 통합연수



1차: 10월 30일(토), 31일(일)
2차: 11월 6일(토), 7일(일)
푸른나무 교육관
청소년사목국(국장: 윤정현 신부) 주관



10월 31일(일)
주임: 김정옥 신부, 회장: 김지수 안셀모



11월 7일(일)
주임: 김무웅 신부, 회장: 오익근 바오로



11월 7일(일)
주임: 신진수 신부, 회장: 이은홍 프란치스코



(마르코 13,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1년 ‘신앙과 말씀의 해’ 첫 번째 실천사항인 **하느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의 ‘**주일의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를 위한 성구가 매주 게재됩니다. 1년간 상단의 성구 위에 따라 쓴 후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교 구

그림 & 생활성가로 목상하는
2022년 탁상용 달력

- 신청방법 : 카카오톡 채널
 - 카카오톡에서 <부산교구달력> 친구 추가 후 신청
 - 내용 :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부수
- 판매가 : 3천원/1부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 입금 : (입금자명 : 성함+전화번호 끝 4자리)
농협 301-2018-0726-51 천주교부산교구
- 보금방법 : 12월 중 본당에서 수령 (추후 공지)
- 문 의 : 051-629-8750~2 (전산홍보국)



그림. 황수정 율리야나

▶ QR코드를 스캔하면

그림과 함께 목상할 수 있는 생활성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당

‘나자렛 성가정의 신비’ 체험수기 공모전
기간 : 11.14(일)~12.5(일)
주제 : 성가정 21가지 미션수행 체험담
분량 : 200자 원고지 6매 이상
시상 :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50만원), 장려상(3명, 30만원)
문의 : 각 본당 사무실(공문 열람)

명지신도시성당 교중미사 지휘자 구함
주일 교중미사 / 모집인원 : 1명
문의 : 294-7711(본당 사무실)
010-3864-5915(성가대 단장)

기관·제 단체·위원회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1.16(화) 매월 세번째 화요일 · 가야성당
14:00 체나콜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 / 지도 : 윤명기 신부
문의 : 010-8879-2376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11.18(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
주제 : 근현대 성인들(로울라의 성 이나시오)
문의 : 515-0030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11.20(토) 11:00 ·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성당
주례 :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 519-047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1일~11월 7일]

소계 : 1,540,000원

명지넷별Pr. 10,000 김혜정 1,000,000 박철수 50,000 손정화 30,000 조정은 50,000
이춘희 300,000
김필선 100,000

누계 : 923,048,552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p>서울공예사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형인환(가를로)·김경자(모니카)</p>	<p>50년 전통 명신당 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로로) 김영란(제노베파) 010-3599-7885 646-7885 범일역 1번출구 진시장 방면 약 50미터 거리</p>	<p>성모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삼일누수탐지공사 물 새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 202-3011 이 국 영 (베드로)</p>	<p>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친환경방역소독 바이박스 바퀴벌레, 개미, 쥐 해충완전박멸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소독 전문화된 맞춤형 방역시스템 허정희 토마스아퀴나스 010-9689-8119</p>	<p>닥터 플루트 학원 플루트 전문 음악교육 센터 취미(유치부, 초중등, 성인)/전공/가톨릭 성가반 원장. 김윤희(플로라) 758-9839 상담 010-6516-9838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롯데갤러리음 S동 3층</p>	<p>유창훈내과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전문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유창훈 베드로 원장 신기동 양산우체국 옆 055-785-6000</p>	<p>거 제 주 단 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632-0696 010-9331-6633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p>	<p>(주)가나안보청기 서면점, 남포점, 해운대점, 동래점 원산지 : 독일 * 교우특별우대 * 전세계 모든 브랜드 A/S가능 김도현 (모 세) 010-7674-2828</p>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치유 기도회
· 11.17(수) 13:00~15:00
-금요 밤미사
· 11.19(금) 21:00~23:00
-주방 보조직원 구함
서류: 이력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숙식 제공합니다)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11.18(목) 10:30 금정성당
주례: 박근혁 신부(5공비단 해성대성당)
울산: 12.3(금) 10:00 옥동성당
주례: 최혁 신부(국군정보사령부 성가브리엘성당)
문의: 751-3610, (052)274-3608

가톨릭센터 직원 구함

대상: 기획/관리보조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접수마감: 11.17(수) 17:00, 면접 개별통지
문의: 462-1870(가톨릭센터)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목처 계약직원 구함

자격: 피아노 반주 가능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
접수기간: 12.3(금)까지 / 계약일자: 1.3(월)
접수방법: 메일(mihee@cup.ac.kr) 또는 우편
접수(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산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관 4층 403호)
문의: 510-0504, Fax 510-0509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WWWME 부산협의회)

ZOOM과 함께 ME주말을 가정에서 실시시간 비대면 ME주말

▶ **일시:** 12.17(금) 20:00~19(일) 17:00
▶ **장소:** 각 가정 ▶ **대상:** 부부(결혼 3년 이상, 종교 무관), 성직자, 수도자
▶ **신청:** (051)465-1010(부산ME주말분과)
본당 가정분과 또는 본당 ME 대표

부산선택주말 제93차 (비속박)

· 12.4(토), 12.5(일) · 푸른나무교육관
대상: 만 40세 이하 청년, 비신자 환영
참가비: 6만원 / 접수: 11.28(일)까지
문의: 010-8029-8038(박지원)

평신도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방문교리(가정): 몸이 불편해서서 본당교리가 힘든
신분 / 파견교리(본당):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
문의: 462-0334(부산가톨릭신학원 홈페이지)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사수녀회 후원미사

· 11.19(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010-9081-1743, 582-1774

이태석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 11.20(토) 10:00 · 이태석신부기념관 4층
문의: 241-1601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대상: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신자
문의: 010-8503-0228(티없으신마리아성심
수녀회), 010-9310-5289(부산자부 회장)

맨발 가르멜 재속 회원 모집

대상: 세례 받은지 3년이 지나고 견진을 받은 55세
이하인 자 / 문의: 010-3861-0027(주일팀), 010-
9413-9779(월요일팀), 010-5160-4754(화요일팀)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 센터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463-7866
내방상담: 월~토 10:00~16:30(동래 명륜역 2번
출구) - 신자, 비신자, 타종교인 및 지역민
토 10:00~16:30: 청소년 상담 및 일반성인 상담
조옥진 신부(상담학 박사): 영성심리상담 및 고
해식 상담 -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상담
운영자: 김정애 회장, 전문상담사 및 조옥진 신부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11.20(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11.21(일) 14:00	온라인 공간(ZOOM)	010-3679-7198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대상: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
문의: 010-2574-2656(일반인반),
010-2642-2556(직장인반)

삼위일체수녀회 조정숙 율리아 도예전

주제: 순명을 만나다 VIII - 성모님의 품
방문시간: 10:00~16:00
· 11.14(일)~28(일), 작가와의 만남 11.14(일)
· 삼위일체수녀회 뒷뜰 / 문의: 463-7660

30대 청년을 위한 구약 통독(ZOOM 수업)

· 1~12월 일요일 16:00~18:00 (3개월에 10만원)
지도 및 문의: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김성태 신부)

해독, 효소단식 성경통독피정

· 11.18(목)~21(일) / 11.25(목)~28(일)
· 성모솔숲마을 / 지도신부: 박상호 신부
문의: (054)373-3955, 010-6630-3816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 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오후 트레킹
자연순례피정: 11.20~22, 12.11~13, 12.30~1.2
눈꽃산행피정: 1.8~10, 1.21~23, 1.28~30
문의: (02)773-1463, (064)756-6009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안내

전입학설명회: 12.4(토) 14:00
겨울진학캠프: 2022.1.8(토)~9(일)
대상: 현 초6, 중1 / 문의: (054)338-0530

2022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 11.15(월)~2022.2.9(수)(우편신청
가능) /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전형: 일반전형, 외국인전형
접수기간: 11.3(수)~11.16(화)
접수방법: 인터넷원서접수


문의: 일반전형 510-0742 / graduate.cup.ac.kr
외국인전형 510-0862~4 / kwak@cup.ac.kr

10월 18일 도수치료실 오픈

비수술로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개선

메리놀병원TV 소아청소년과 박상민 과장

“배가 자주 오래 아픈 아이, 이것만 기억하자!” 유튜브로 확인해보세요.

 **메리놀병원 대표전화: 465-8801**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배움터 대실

▶ 110석, 60석, 30석 등 4개의 교실 운영
▶ 교육·세미나·워크샵 가능 / 음향·영상시설 구비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 8층 21평, 6층 21평, 14평 ▶ 가톨릭 신자 및 단체 환영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비잔틴 이콘학교</p> <p><원데이> <초급반> <중급반> 모집합니다 010-2963-5672 광안역 6번 출구</p>	<p>김용기내과의원</p> <p>[총무동 구. 김동수 내과] 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원장 김용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p>	<p>독일보청기</p> <p>동래교차로(수안동)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 보조금상담, 교우특별할인, 즉석 A/S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동래구 중원대로 229, 수안역 7번출구 앞 2층</p>	<p>한방화장품 상황미인</p> <p>노인냄새제거 천연한방화장료 특허 바디워시 바디로션/ 실버 한방화장품 교우 30%~50%할인(구매 전 전화요망) 010-8557-8153, 758-9115 신영우(프란치스코) www.soosul.com</p>	<p>정대수맑은신경과</p> <p>(미카엘) 신경과전문의 의학박사 전)부산대학병원장 치 매·뇌졸 중 신경과 과장 두 통·어지럼증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고혈압·불면증 남천역 3번출구 612-6100</p>
<p>법무법인 율강</p> <p>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회생, 파산 및 각종법률상담 신자는 별도의 상담료 없음 대표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717-2570, 010-7455-1031</p>	<p>동래광안 참사랑요양병원</p> <p>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751-1515 김명희(야베스)</p>	<p>해맑음농장</p> <p>해남깡꿀절임배추 1박스 20kg 35,000원(택배 포함) 농협 김은재 302-14793-19871 대표 김해갑(베드로) 010-7929-8779</p>	<p>박숙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p> <p>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햇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의학박사 박숙현(에스델)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p>	<p>성분도치과병원</p> <p>율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녀회 운영 752-9011, 9022 010-2755-9011</p>